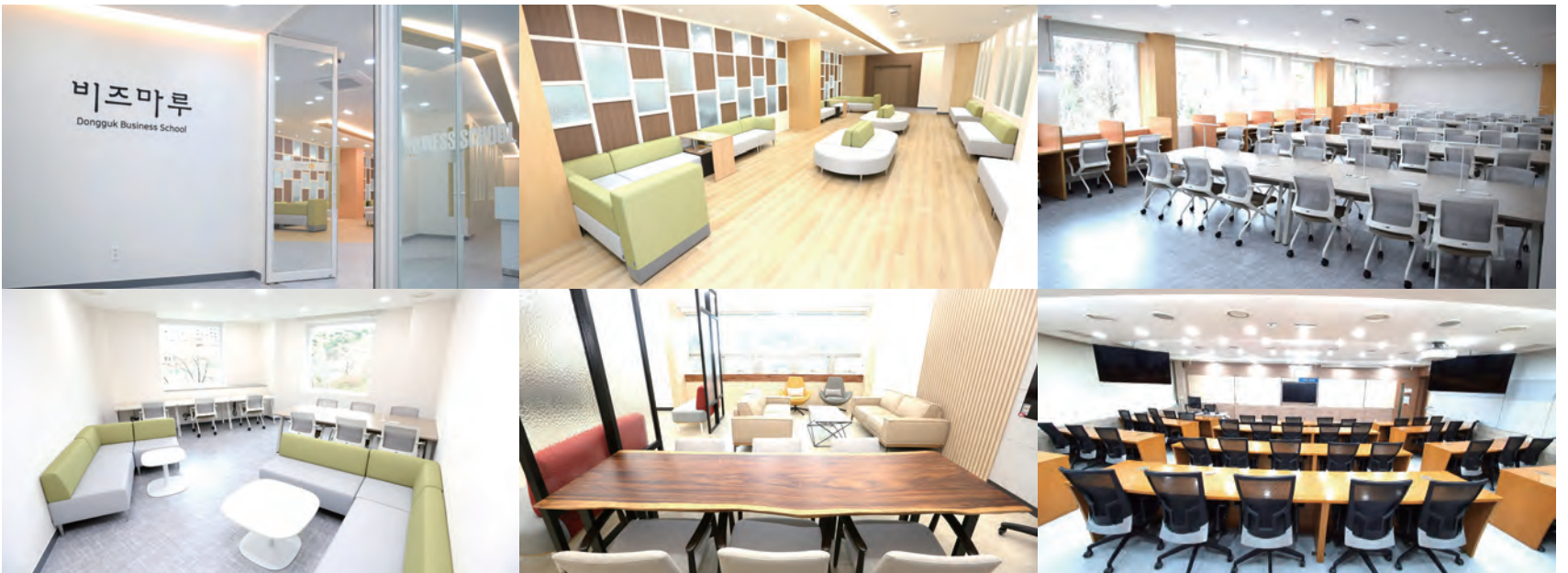


2022년 봄 새롭게 단장한 경영대

비즈마루 · MBA 라운지 · 스마트강의실 등 교육환경 대폭 개선



지난 겨울방학 동안 경영관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설공사가 진행되었다. 비즈마루를 비롯해 MBA라운지, 스마트 강의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새학기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비즈마루, 재학생 복합공간으로 전면 리모델링
지난 3월23일 경영대 교수, 학생회 집행부, 학사운영실 직원들이 함께 겨울방학동안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비즈마루와 MBA라운지 오픈 투어를 진행하였다.

비즈마루는 학생들의 열람실 공간으로 경영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생들의 지속적인 리모델링 요구가 있었다. 이번 공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성정훈(경영 02), 박선영(경영 04) 동문 부부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작년 11월 설계를 시작하여 올해 3월 전면 리모델링을 마쳤다. 새롭게 조성된 비즈마루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열람실, 휴게실, 스터디 룸, 대학원생 라운지 등의 복합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최신 공조시설 등을 갖추었다. 총 좌석은 166석으로 테이블 좌석 90석, 스터디 룸 26석, 소파 50석으로 구성됐다

MBA 전용 라운지 새단장

경영관 2층에 위치한 MBA라운지도 리모델링을 거쳐 새단장을 마쳤다. MBA라운지는 MBA발전기금을 재원으로 MBA 재학생들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총 25석 규모의 다양한 좌석에 대형 모니터, 커피머신,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직장인 재학생들을 위한 휴식 및 세미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대면-비대면 실시간 동시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강의실 조성

경영관의 대표 강의실인 MBA202 강의실을 첨단 스마트 강의실로 조성하였다. 이로서 경영관에는 총 3곳의 스마트 강의실을 갖추게 되었다. 스마트 강의실에는 최신 터치 스크린, 대형 모니터, 모션 감지 카메라, 음성 집진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곳 스마트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면 학생들은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대면-비대면 실시간 동시수업이 가능하다.

활기를 되찾은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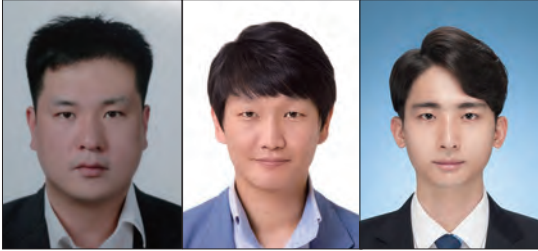


2022학년도 신입생 과점퍼 수여식 경영관 정원에서 함께 한 교직원

행사를 즐기는 학생들

열공하는 경영대 학생들

MBA 제16기 학생회 소개



왼쪽부터 최건우 회장, 설민준 부회장, 이승훈 총무부장

안녕하십니까! MBA 16기 학생회입니다.

저희 MBA 16기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온라인(Webex)과 오프라인(대면수업)을 경험하는 첫 기수입니다. 16기 학생회는 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MBA, 약학MBA 및 의료기기혁신경영MBA 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16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BA 16기 학생회는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원우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다음과 같은 운영방향을 가지고 보람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는 MBA

2022년 새롭게 출범하는 16기 학생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해제 등 정부의 방역조치 전환과 발맞추어 유연한 학생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학생회는 평일은 직장생활, 주말 수업은 학업생활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특히 주말 수업 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수님과 학생간의 소통의 창구, 원우들 간의 관계 형성 지원 및 소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함께 성장하는 동국대 MBA 공동체

MBA 원우들은 법인대표, 대기업 임원, 스타트업 경영자, IT, 약학, 의료기기, 제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내 중역으로서 핵심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원우들 간의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융합형 인재,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기 학생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행 속도와 발맞추어 15기 선배님들과 오프라

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선,후배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동국대 MBA 동문들과의 연결을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차별화된 역량 성장이 가능한 교내 활동

MBA과정은 직장인 친화형 교육체제로 3학기 만에 졸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의료기기경영, 약학은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고급 지식 분야로서 많은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학생회는 이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학교 수업 뿐 만 아니라 교내 동아리 및 워크숍, 교류를 통해 재학 중인 원우분들의 역량성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학생회 및 학사운영실에 도움을 받아 다양한 학업 정보를 홍보하여 향후 입학하실 후배 원우들이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MBA 졸업 후 이직, 부서 이동이나 승진,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들로 성장시켜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인재 또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경영대학 제54대 학생회 소개



왼쪽부터 고아라 경영대학 회장, 이다은 경영대학 부회장, 이동휘 경영학과 회장, 전태욱 회계학과 회장, 정호영 경영정보학과 회장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4대 경영대 학생회 '동경'입니다. 저희 동경은 '가치 있는 어울림, 같이 걷는 동경'을 기조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의 캠퍼스 생활 회복과 적응을 도우며 경영대학 학우 여러분의 매 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발걸음을 이끄는 학생회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비대면 상황에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2021년을 거쳤습니다. 이제,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2022년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지만, 이 또

한 하나의 변화인 만큼 설렘도 혼란도 존재합니다. 저희 동경은 경영대학 학우분들께서 달라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기 및 선배후배간의 끈끈한 연결과 교수와 학생, 학교와 학생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경영대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빛날 수 있는 경영대

학우분들의 가치와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게, 경영대학은 든든한 울타리로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영대 각종 시설의 개선, 고시 지원 강화, 전공 필수 과목과 영어 강의 확충 등 학우분들께서 지속적으

로 아쉬움을 느끼셨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동경은 경영대학 학우분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자부심을 느끼고 발전된 경영대를 가꾸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영대학이 단단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어울림으로 나아가는 경영대

동경은 경영대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세 학과의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중한 대학 생활에 특별함이 되는 활동들을 통해, 경영대학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하고 열린 학생회로서 같이 걸겠습니다. 저희 동경은 항상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저희 동경의 사업 및 다양한 행사들을 인스타그램(@54dongkyung)을 비롯한 소통창구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학생사회를 이루어 뜻깊은 대학생활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진선 교수(회계) 퇴임사

“동악을 떠나며”



김진선 교수

선배 교수님들께서 정년을 맞아 ‘대과 없이 교직을 마치게 되어 다행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왜 아무 감흥도 없는 판에 박힌 말씀들을 하실까 하고 생각해왔는데, 정작 저 자신이 정년을 100일도 채 안 남긴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전적 대학에서 2년을 보내고 1995년 가을학기에 동국대학교에 임용되었으니 만 27년을 동악에서 생활한 셈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간 참으로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우선 1997년 늦가을에 터진 IMF외환위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졸업생들의 취업길이 모두 막히고 매년 거행되던 사은회가 폐지되는 등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못사는 자식에게 더 애정이 간다는 말이 있는데, 1997~98년에 졸업한 제자들에게 딱히 해준 것이 없어 정말 안쓰러웠고 상당한 세월 후에 이들 중 몇몇이 주례를 부탁하려고 찾아올 때 부담감이 없지 않았으나 반드시 축하해 주고픈 마음에 일단 승낙하고 변변치 않은 주례사를 하게 된 기억이 생생합니다. 1995년 당시에는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까지 한 살림을 하던 경상대학 체제였는데 경영대학이 독립하고 이후 수차례의 학제 개편을 거쳐 지금의 3과 체제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다면 경영대의 학제가 어떻게 변경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라는 조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영학을 비롯해서 회계학이나 경영정보학의 학문분야가 완전히 개편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직관이 생길 즈음에 LA캠퍼스 책임자로 파견되어 2년 반을 행정에만 매달리게 되었고 이후 병석에 누우신 부친을 간호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다 보니 연구에 전념할 모멘텀을 놓친 점이 없지 않았고, 평소 학문적으로 존경하던 선배교수와 사이가 벌어져 수차례 송사에 휘말리는 등 예상 밖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서 학교일에도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주마간산 격으로 저의 동악에서의 세월의 일단을 적었지만 제 자신의 푸념을 남기려는 뜻은 아니고 후배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인생을 먼저 산 사람으로서 경험을 피력해서 제가 저지른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경영학이란 학문분야는 미국의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학문풍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5면으로 이어집니다.

권익현 교수(경영) 퇴임사

“긍정의 마음은 늘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1일 동국대학교를 퇴직하는 경영학과 교수 권익현입니다.

1995년 9월 1일 부임하여 지금까지 동국대학교는 가정과 함께 제 삶의 두 축을 이루는 한쪽 기둥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많은 만남과 나눔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에는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품격과 자질을 몸소 보여주신 선배 교수님들이 계셨고, 학교 발전과 제자 양성에 헌신하는 동료 후배교수님들이 계셨으며, 최적의 교육환경과 연구환경을 위해 힘써주신 직원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의실에서, 캠퍼스에서, 때로는 연구실에서 마주한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만남과 나눔은 제게 ‘긍정의 마음은 늘 양방향으로 흐른다.’는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갖고 있는 전공지식을 가르치고 조금 더 오래 산 사람으로서의 삶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 교수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이 눈빛과 표정을 통해 되돌려 주는 ‘받아들여줌’의 마음이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과의 나눔은 곧 제 삶의 보람이고 의미가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훈계를 하느라 여러분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이르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오롯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양해와 사과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동국가족 여러분 모두의 삶이 늘 평안함 속에서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익현 교수

김진문(경영64, 경대원 90)동문 경영대학원동창회 회장 취임

한진수 명예교수(회계) 용인대 제9대 총장 취임



경영대학원동창회 김진문 신임 회장

경영대학원동창회는 3월25일 정기총회를 갖고 김진문(신성약품 회장) 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윤병건(경대원86) 사무처장 사회로 신성약품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는 주요 임원 및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의사정족수 등은 회칙에 따라 위임장으로 충족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과거에 경영대학원동창회장직을 역임한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명문 전통의 동창회로 세워달라는 주문인 것 같다”면서 “책임과 사명감으로 소통하며 회원친목, 모교발전 등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인사했다.



한진수 교수

한진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회계)가 용인대학교 제9대 총장에 취임했다.

용인대에 따르면 2월22일 신임 한진수 총장 취임식과 제7~8대 박선경 총장 이임식이 열렸다. 한 총장은 취임사에서 “용인대는 정도경영을 하는 대학,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대학, 역동성이 넘치며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이라며 “앞으로 100년을 향해 가는 여정에 구성원 여러분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대학 거버넌스의 혁신 △대학재정의 수입 확충과 재무건전성을 확보 등 세 가지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한 총장은 1986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교수에 임용됐고,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동국대 경영대학원장·경영대학장 및 경영부총장에 이어 2019년부터 용인대 학교법인 단호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임 한진수 총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4년이다.

22학년도 1학기 경영학과 장학기금 장학생 선발

DBA Scholarship 장학생 16명,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생 3명

지난 5월 20일(금), 경영대학 강우성 교수(경영학과 학과장), 전진규 교수(경영대학 부학장), 안영찬(경영 85) 동문, 신경필(경영 90) 동문은 2022년도 1학기 경영학과 장학기금 장학생 선발을 위한 지원자 면접을 진행하였다. 경영학과 장학금 중 DBA Scholarship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16명의 학생에게 각 1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또한, 경영학과 재학생의 해외 교환학생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장학생도 선발하였다. 선발된 3명의 학생에게는 6개월 최대 USD 6,000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영학과 장학금은 경영학과 동문회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DBA Scholarship’,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DK장학)’ 외에도 ‘전문자격증 장학’, ‘해외 유학지원금 및 본교 대학원 진학지원금’ 등을 매학기 지원하고 있다.

권익현 교수, 제자들을 위해 ‘2억원’ 기부

권익현 교수는 지난 12월과 1월, 학과 제자들을 위해 총 2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권익현 제자사랑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조성되어 경영학과 강의실 환경개선 및 학과 발전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2억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권익현 교수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 교수는 1995년 부임 이래 제자들을 위한 장학기금, 학교 발전기금 등을 꾸준히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2018~2019년에 걸쳐 외부

장학재단으로부터 약 2억원의 장학금을 동국대에 유치하는 데 큰 힘을 보태기도 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화장품 제조업체 엘앤피코스메틱(주)에서 우리 대학에 현금 5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化妆품을 기부했다. 5천만원은 권익현 교수가 제자 지원을 위해 개설한 <권익현 제자사랑기금>으로 적립됐다. 기증 물품은 권 교수의 의사에 따라 그동안 학내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 환경미화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번 기부는 권 교수와 40년지기인 엘

앤피코스메틱(주)의 권오섭 회장이 올해 8월 예정된 권 교수의 퇴임을 축하하는 한편, 그간 기업 성장에 일조한 권 교수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권익현 교수는 “기부에 대한 생각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동국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편을 잡으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 보람되고 감사한 마음이다. 퇴임 전에 제자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사랑하는 제자들, 앞으로 동국대학교에 입학할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경영정보학과 김인재 교수, 한국지식경영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김인재 교수

한국지식경영학회는 1월 4일, 2021년 「지식경영연구」에 실린 60편의 논문 중 김인재 교수가 5인의 공저자와 집필한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제품수명주기관리의 지식영역 적용도 분석'을 최우수 논문상으로 선정했다. 김 교수는 "이번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이 제품수명주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가까운 미래 준비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향후에도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최신 정보기술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교수는 국내외 주요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기술의 채택과정 ▲스마트팩토리 ▲정보기술 전략과 정책 ▲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한편 김교수는 Eurasian Foundation으로부터 5년 동안 지원을 받아 『유라시아 지역의 정부기술의 활용』 강좌를 다르마칼리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3면에서 이어집니다.

강의시간에 수차례 언급한 바대로 미국이란 패권국가의 역사는 250년이 채 안되지만 미국 대학의 역사는 16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일찍이 대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럽 문명을 새롭게 꽃피우기 위해 독립전쟁 이전 140년간 인재양성에 전력투구 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가 왜 그리도 조선에 대학설립을 막으려 했는지 미국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와중에도 우리 동국대학교는 1906년 명진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고등교육의 선구적인 깃발을 높이 치켜든 귀중한 전통을 가진 대학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역사를 깊이 새기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준비된 자들에게 항상 기회가 있다는 투철한 신념으로 실력양성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 비록 캠퍼스를 떠나지만 건강과 기회가 허락되는 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제 뒤에 오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을 각오입니다.

경영대학 구성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건승을 기원하며 재임기간 동안 알게 모르게 제게 잘해주셨던 모든 선후배 교수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학과 이영면 교수 · 이채호 교수 개교 제116주년 기념 공로상 · 학술상 수상



이영면 교수

지난 5월 4일(수), 본관 중강당에서 개최된 개교 제116주년 기념식에서 경영학과 이영면 교수가 기금조성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기금조성 공로상은 적극적인 기부금 조성을 통해 학교발전에 기여한 구성원을 선정하여 매년 개교 기념식에서 시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해 경영대학 발전을 위한 고액기부를 유치하고 이를 재원으로 비즈마루 리모델링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경영학과 이채호 교수가 2022년 동

국 학술상 및 우수 연구자상 2개 분야에 선정되었다. 이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AI마케팅 ▲경험 마케팅 ▲문화 마케팅 ▲마케팅 조사이며, 동국 학술상은

2019~2021년 JCR IF 25% 이내 SSCI 주저자 논문 4건, 국제저명 주저자 논문 피인용 횟수 84회, JCR IF 상위 7%이내 2건의 연구성과로 선정되었고, 우수 연구자상은 사회계열 국제저명 1위로 수상하게 되었다. 이 교수는 총 2,000만원의 교내 연구비를 포상으로 지원 받게 된다.



이채호 교수

2022년도 1학기 경영대학 신규교원 소개

전공: 관리회계 / 연구분야: 성과평가, 목표설정, 경영자보상, ESG성과관리
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박사(회계학전공)



정선문 교수

오랜 전통을 지닌 사학의 명문 동국대의 가족이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동국대에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똑똑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옵니다. 제

전공인 관리회계는 기업의 언어인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소화하기 위한 경영진의 내부의사결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회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하는 한편,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최신 연구결과와 실무에서의 시사점을 배워 역동적인 기업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대 우수 연구자상 신설 논문분야 연구비분야 선정

경영대는 소속 교수들의 연구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올 해부터 경영대학 우수연구자상을 시상하기로 했다. 논문분야와 연구비분야로 나누어 직전년도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매년 선정한다.

올 해 수상자는 논문분야에 경영학과 최경규 교수, 연구비분야에 경영학과 임성묵 교수가 각각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경영대학 전체교수회의에서 진행한다.

위정원(경영 13), 박성원(경영 17) 인터뷰

자본시장의 꽃,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꿈꾼다



위정원(경영 13)

2019년도 2월에 졸업해 현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근무 중인 경영학과 13학번 위정원입니다. 저는 상장 기업 중 정유/화학 분야의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증권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학창시절 투자론 수업을 수강하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당시 증권사 리포트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일을 시작한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았을 때 여의도 금융권 취업을 위해 준비했던 과정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증권사나 CFA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투자 대회를 준비해 입상한 경력부

터 비금융 기업에서 1~2년 정도 근무를 하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해서 들어온 친구들까지 저마다 다양한 커리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재무와 회계 관련된 지식은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대학교 2학년부턴 재무와 회계 관련된 학과 수업을 계획을 세워 수강을 했었고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어필할 수 있지만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학문적 지식들과 자신이 노력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점은 기본 소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로서 삶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삶은 워라벨(Working-life balance)과는 거리가 먼 편입니다. 주식 시장은 정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늘 변화에 익숙해져야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

합니다.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적시성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투자에 도움을 주는 효용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은 편이고 타 직종에 비해 업무량의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에 리포트를 발간하고 투자자분들의 가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를 발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가치

제가 생각하는 애널리스트의 업무 중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주는 일종의 사회 공헌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일반 개인 입장에서 기업이 성장할 때 그 수혜를 함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증권사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를 모든 투자자들에게 차별없이 제공한다는 점은 일종의 사회 공헌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많은 업무량과 시간에 쫓기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틀에 박힌 반복적인 업무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두루 만나며 스스로의 커리어를 직접 개척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아직 미생(未生)에 불과하지만 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싶은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원(경영 17)

경영학과 17학번으로 22년 가을 졸업을 앞둔 박성원입니다. 저는 현재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기업분석 RA로 스톡캡과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 리서치분야를 선택했던 이유는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선순환으로 제 자신에게 자기계발이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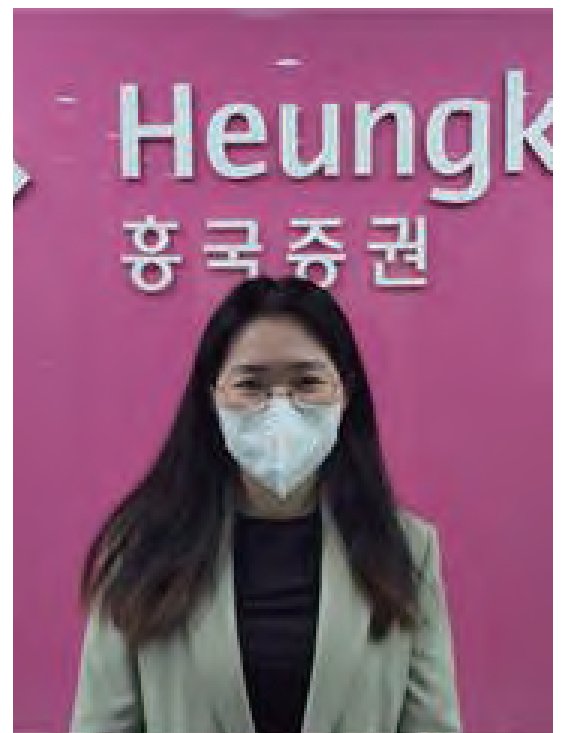
회사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 때, 따로 자기자신을 위해 자기계발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서치 업무는 담당하는 섹터 하나를 깊게 파서 산업과 기업에 대해 남다른 이해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주식시장 및 경제를 보는 저만의 눈을 가진다면, 보다 나은 해외주식 전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

자소서를 작성하고 직접 지원서를 제출한 기간은 짧으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은 1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금융분야에 취업하고 싶었으나, 여러 스펙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 금융에 기초를 닦기 위해 CFA LEVEL 1을 공부하여 통과했고, 여러 리서치 대회, 대외활동 및 동아리를 통해 직접 기업분석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7면으로 이어집니다.



특별기고 - 정진영(경영 18)

“CFA, 미래를 향한 도전”



현재 CFA(미국 공인재무분석사) 시험을 준비 중인 경영학과 18학번 정진영입니다.

보통 많은 경영대 학우분들이 CPA(공인회계사)시험은 많이 알고 준비하기도 하지만 CFA(미국 공인재무분석사)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글을 통해 CFA가 어떤 시험이고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금융권 기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금융권 취업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 알아보다 국제적으로 투자 및 재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 자격으

로 인정받고 있는 CFA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CFA 시험은 재무 분석에 대한 시험으로, 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금융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가진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문제 출제 및 자격증은 투자 및 재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CFA Institute가 주관합니다. 투자 분야에서 윤리적 행동을 선도하고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주목받는 지식과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FA 시험은 Level I, II, III의 엄격한 시험에 합격하고 4000시간의 유관 경력을 쌓은 응시자들에게 CFA Charter holder 자격을 부여합니다. CFA 자격은 국제적으로 투자 및 재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17만 명이 넘는 CFA회원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 및 재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최고의 전문자격으로 인정받고 있기에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시험입니다.

CFA 시험 자체가 매우 폭넓은 지식을

요하며 커리큘럼 자체가 매우 실무적이라 금융업계 몸 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CFA를 공부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사 등과 투자은행과 증권사 리서치 분야가 CFA 자격증에 가장 각광받기도 합니다.

시험 공부는 다른 금융 시험들과는 다르게 미국 협회에서 보는 시험이라 모든 질문과 답이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CFA 협회에서 만든 슈웨이저 노트라는 요약 정리집은 총 5권, 10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서적 수준이지만 영어로 배우는 점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미국 시험은 한국 시험과 다르게 한 부분을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기 보다는 어렵지 않지만 폭 넓게 시험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깊게 공부하기 보다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합격 기준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접목한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응시자 상위 1% 성적 평균의 70%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합격 기준이 충족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6면에서 이어집니다.

업무 소개와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

리서치 RA는 기본적으로 담당 연구원들을 보좌하며, 센터 공통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연구원들을 보좌하는 목적에 따라,

리포트 작성을 위해 적절한 자료를 찾거나, 관련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정리해낼 때 가장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가장 힘들었을 때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센터 공통업무도 같이 진행해야 할 때, 시간 내에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온 만큼, 시장에

서 남다른 아이디어로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 연구원님들의 리포트를 읽으며, 글의 구성 및 분석 아이디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책을 읽으며 미래에 좋은 글을 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동국대 학창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투자동아리에서 리서치 대회에 나갔던 일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직접 다 분석하고 계획을 세운 첫 번째이자, 제가 하고 싶은 업무의 시작이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금융업계에 동국대

학교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스펙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한 자기계발과 노력을 통해, 어렵게 이 분야에 진입한 선배님들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안될 것이라고 속단하기 보다는,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도전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자신만의 강점을 하나라도 만드시면, 자소서와 면접 때 자신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만들기 쉬우니, 그 부분을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여 뛰어난 성과를 내실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시대를 읽는 동국에서 시대를 이끄는 리더로

시대가 요구하는 **Business Data** 분석능력과
Data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리더를 키웁니다.

최고의 직장인 친화형 MBA

- ☑ AACSB인증 한국형 MBA
- ☑ 경영학적 지식과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기법(파이썬, R) 균형 습득
- ☑ 이론(전임 교수) + 실무(현업 전문가) 협동 강의
- ☑ 직장인 친화형 MBA
 - 1.5년(3학기+계절학기)만에 석사학위 취득
 - 주중(수/금) 야간 비대면 + 주말(토) 대면수업
 - 집중이수제도 & 학부수강과목 이수면제제도
 - MBA 전용 라운지
- ☑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장학금 수혜율 90%이상)
- ☑ 서울의 중심 남산을 품은 편리한 접근성



2022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신입생 모집

모집 과정		주요 내용	
동국 MBA	Business Data Analytics MBA	- 야간/주말 과정	1.5년(3학기+계절학기) 또는 2년
	의료기기혁신경영 MBA		
	약학 MBA		
글로벌 MBA	글로벌 MBA	- 주간과정 - 100% 영어강의	2년
	이중언어반(영어+중국어)	- 주간과정 - 영어+중국어	1.5년(3학기+계절학기) 또는 2년

• 일반전형 원서접수 : 2022. 5. 9(월) ~ 6. 3(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02-2260-8885, 8882 (10:00~17:00) • 동국대 MBA 홈페이지 : mba.dongguk.edu
 • 수시전형 원서접수 : 2022. 6. 29(수) ~ 7. 29(금)